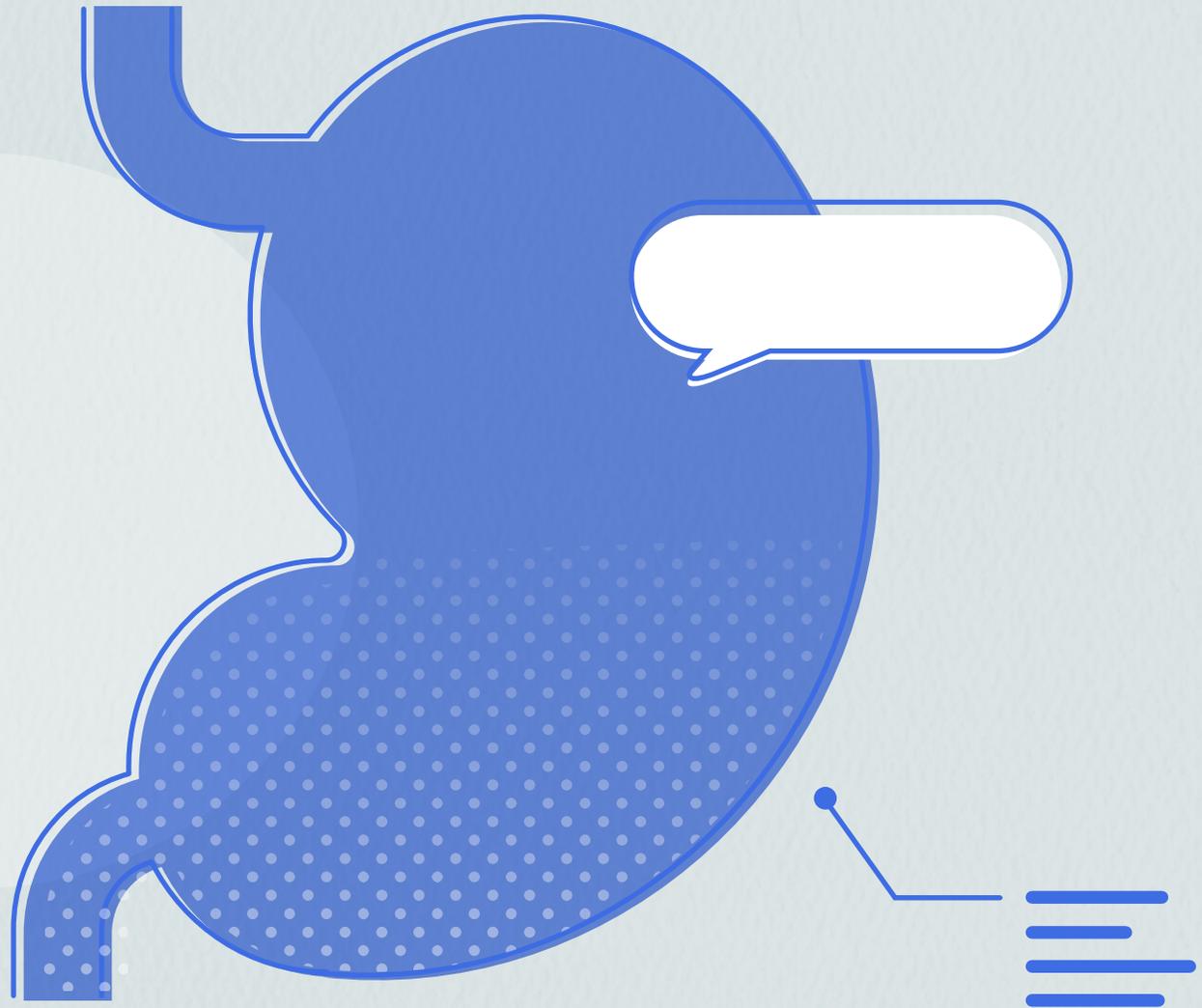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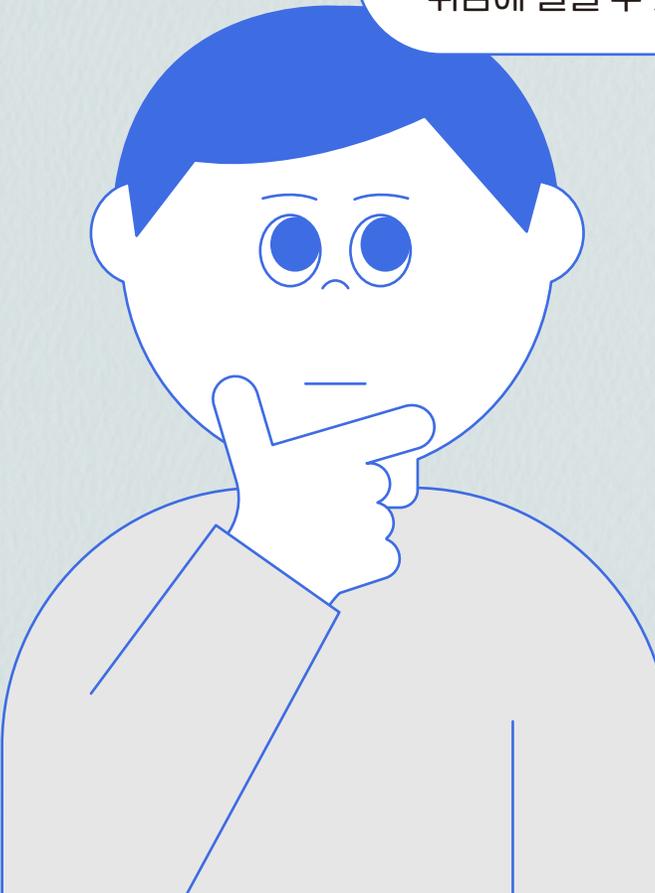


알기 쉬운 위암

조기 진단과 예방법



위암에 대해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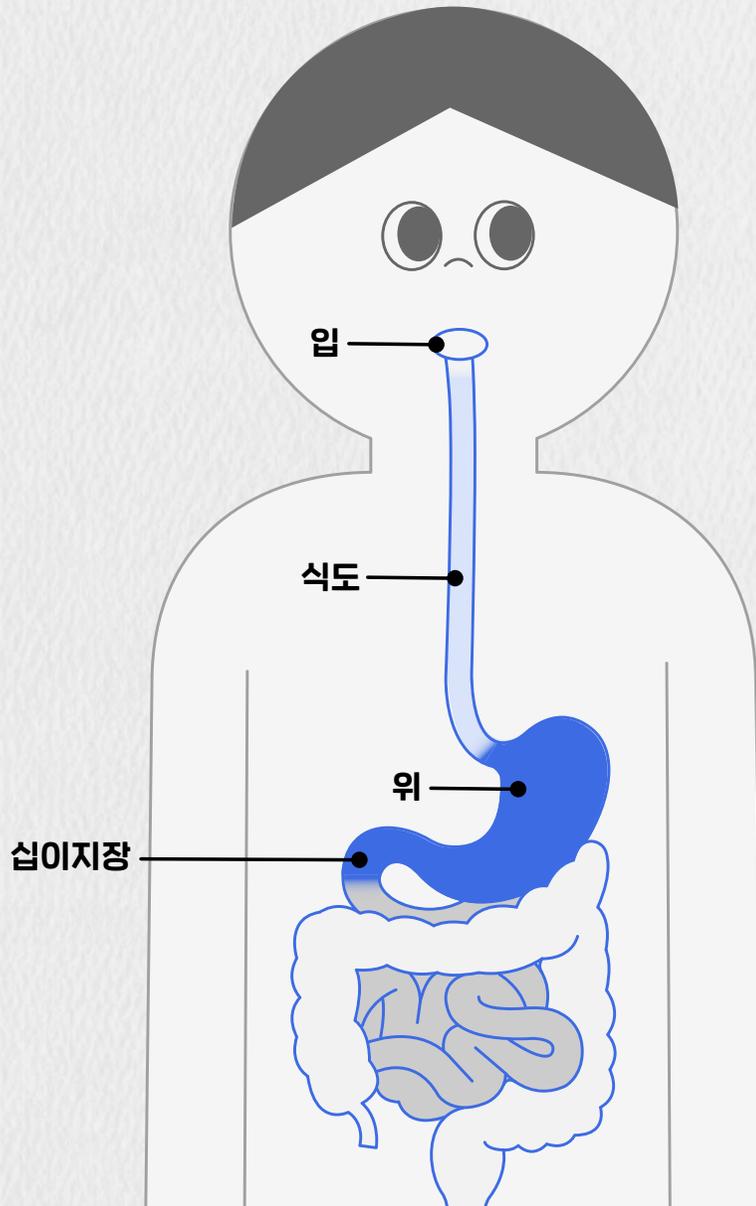


술을 많이 마시면
위암에 걸릴 수 있나요?

외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비만인 사람들이
위암이 잘 생긴다는 게
사실인가요?

위는 우리 복부 위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조/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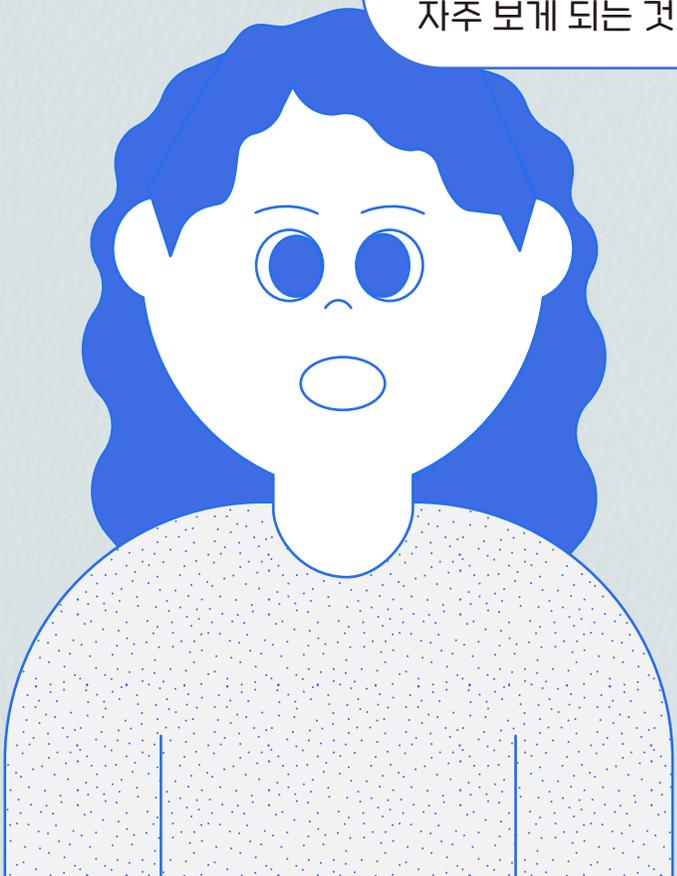
위는 위쪽으로는 식도,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된 주머니 모양의 내장기관입니다.
내장기관 중 가장 넓은 소화기관으로
음식물을 저장하고 소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암의 발생 원인 · 종류

위에 생기는 모든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암은 주로 위점막의 선세포(분비샘세포)에서 발생한
위선암(adenocarcinoma)을 말합니다. 위선암은
위의 점막조직에 있는 세포의 변이로
종양이나 악성 궤양이 생기는 암입니다.
위 점막에서 발생한 암이 진행되면서 위벽을 침범하고,
간, 췌장 등 주변 장기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위에는 위선암 외에도 드물지만 림프종, 간질성 종양,
신경내분비암 등의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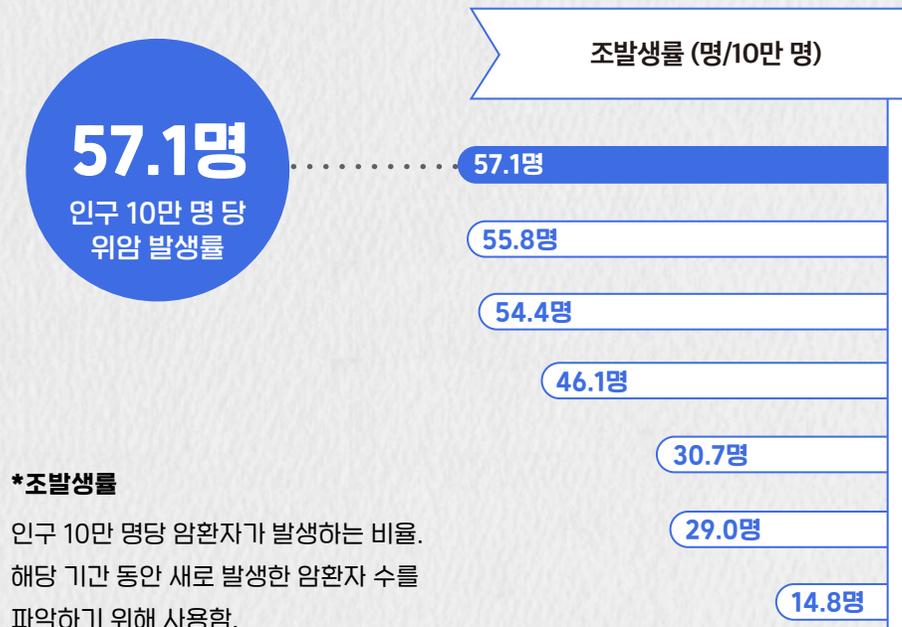
주변에서 위암 환자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위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쉽지 않나요?

남자가 여자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던데...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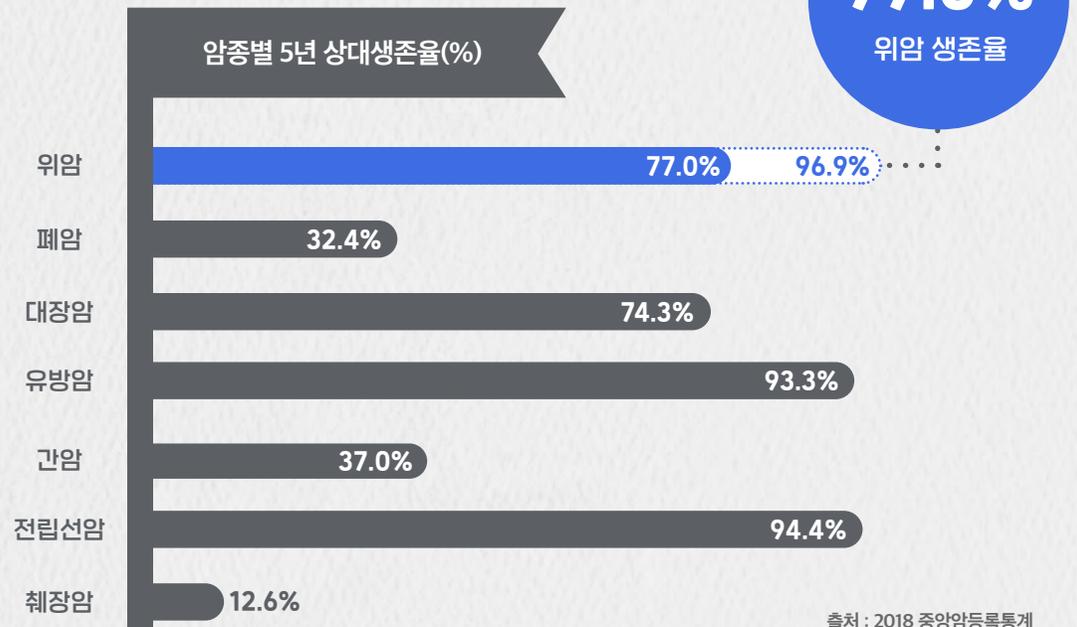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1년에 2만 9천 명으로 전체 암 발생 중 가장 흔한 암입니다. 남성의 발생률과 여성의 발생률이 2:1로 남성에서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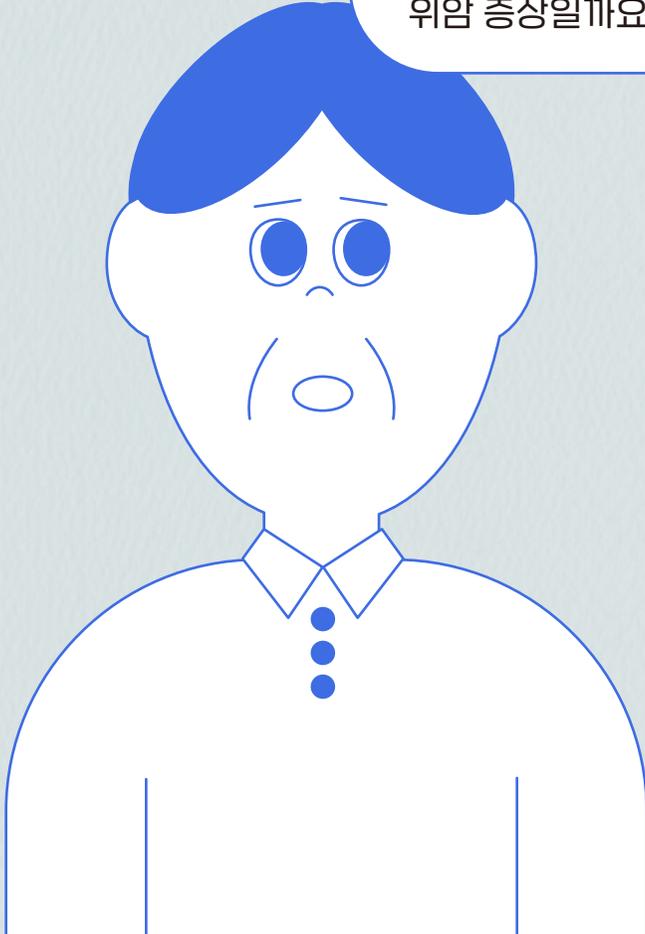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위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7.0%이지만, 조기 발견 시에는 생존율이 96.9%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의 생존율은 6.4% 수준으로 낮아져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입니다.



위암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요즘 들어 속 쓰림이 심해요.
위암 증상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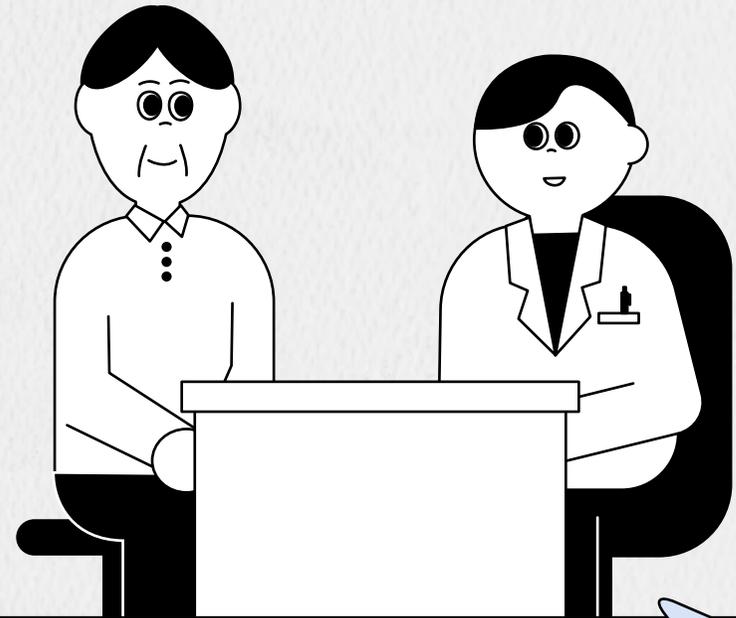
위암에 걸리면
입 냄새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위경련이 자주 있는데...

평소 위염이 있는데
위암과 관련 있을까요?

위암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암은 초기에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속 쓰림, 복통, 소화 불량 등으로 위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증상만으로 위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암이 진행됐을 때에는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해당 증상이 있을 때 위암 진단 확률 (%)



출처: Suspected Cancer, 영국 NICE 가이드라인

위암 환자의 증상



소화 불량이나 복통이 생겼을 때 위암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위암이 아닌 일반적인 소화 기능장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진료 상담 후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하 곤란

음식물을 삼킬 때 음식물이 걸리거나
막힌 듯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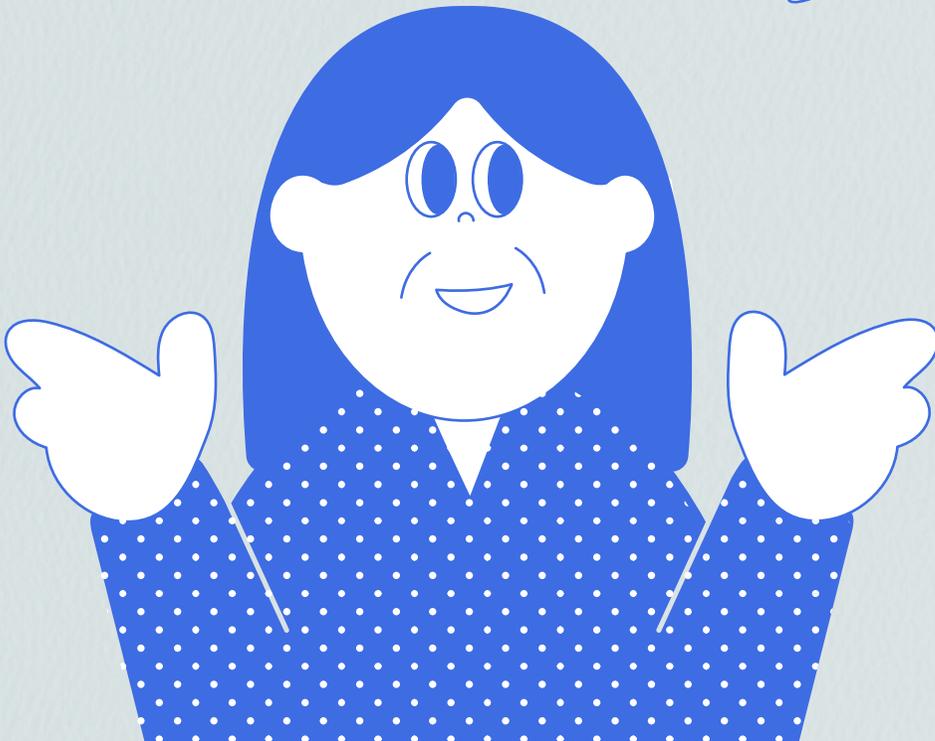
위암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검사받아야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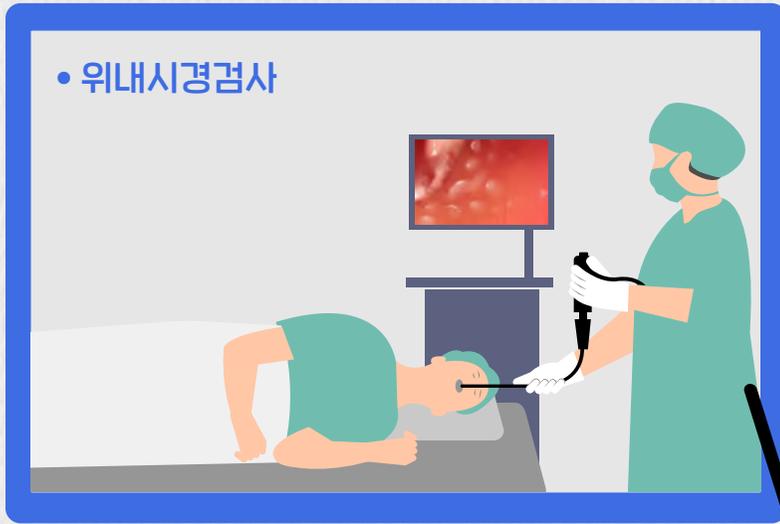
내시경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혈액검사가 제일
정확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병이든 **MRI** 찍으면
다 나오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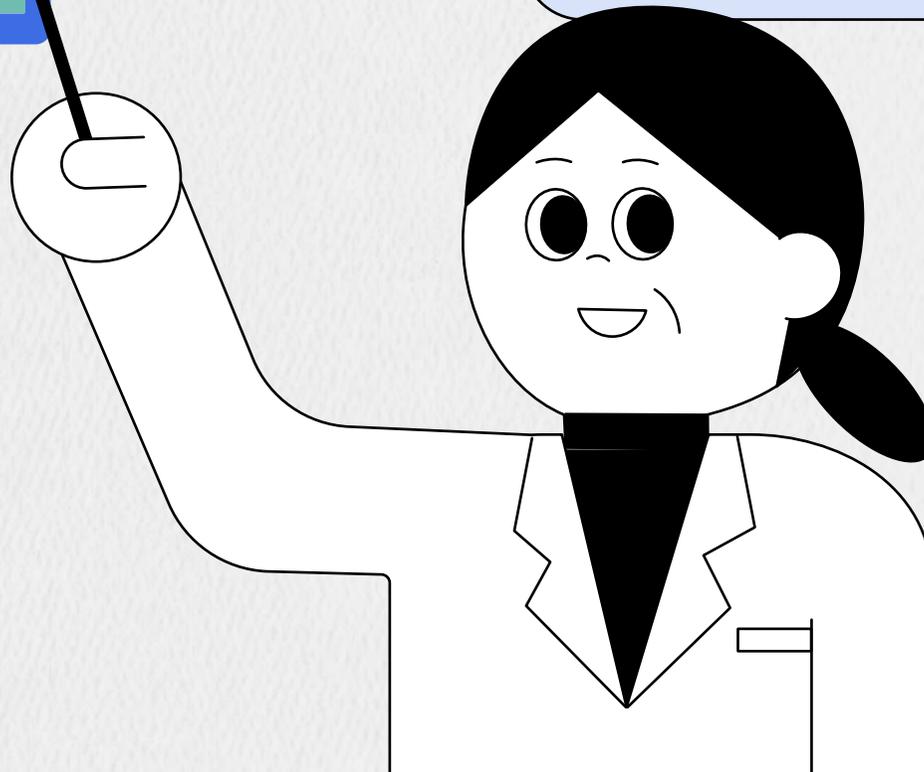


위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진료 상담 후
위내시경을 포함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위암인지 알아보기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암 의심 증상자 대상 진단 검사



위내시경검사

위 내부를 내시경을 이용해 직접 관찰하는 검사

장점

- 검사 정확도가 높음
- 내시경 검사 중 이상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시행 가능

단점

- 고통스러움
- 진정제 및 국소 마취 필요



위장조영검사

조영제를 마신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위 점막 표면 변화를 관찰하는 영상 검사

- 위암의 모양, 크기, 위치를 평가할 수 있어 진단 및 수술 시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함

- 정확도가 낮으며 조직검사가 불가능함
- 위장조영검사서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위내시경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복부 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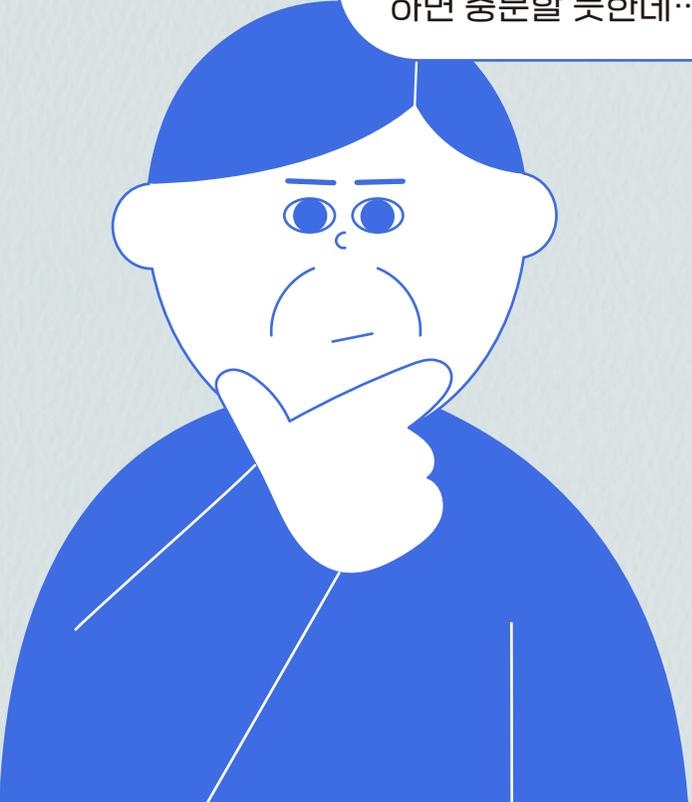
전산화단층촬영

방사선을 이용하여 몸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검사

- 위 포함 복부 속 장기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타 장기의 침범 정도나 협착 정도를 파악 가능

- 비용이 높음
- 위점막에 국한된 조기 암 진단은 어려움
- 방사선 조사량이 많음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은 없나요?



기본 건강검진만 정기적으로
하면 충분할 듯한데...

내시경검사만 받으면
무조건 알 수 있어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국가위암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권고됩니다

검진 \neq 진단 검사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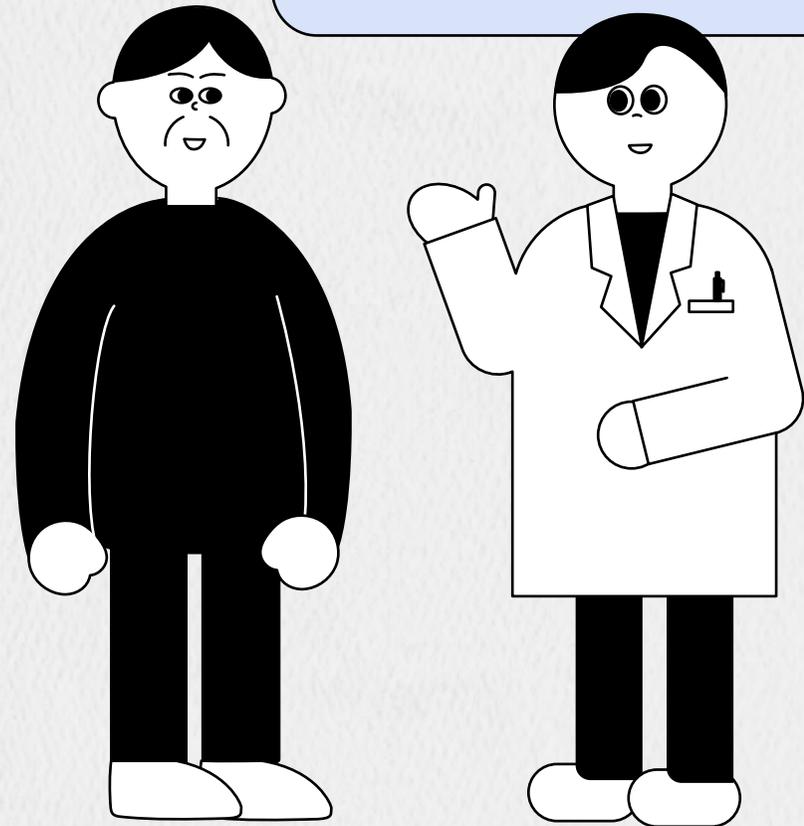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진에서 해당 질병이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단 검사

위암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학적 검사 과정입니다.

위암 조기 진단을 위해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40세 이상 성인은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위암검진을 2년마다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는 위암 조기 검진에 효과적입니다.

40세 이상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통한 위암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방사선을 이용한 위장조영검사로 대체하여 위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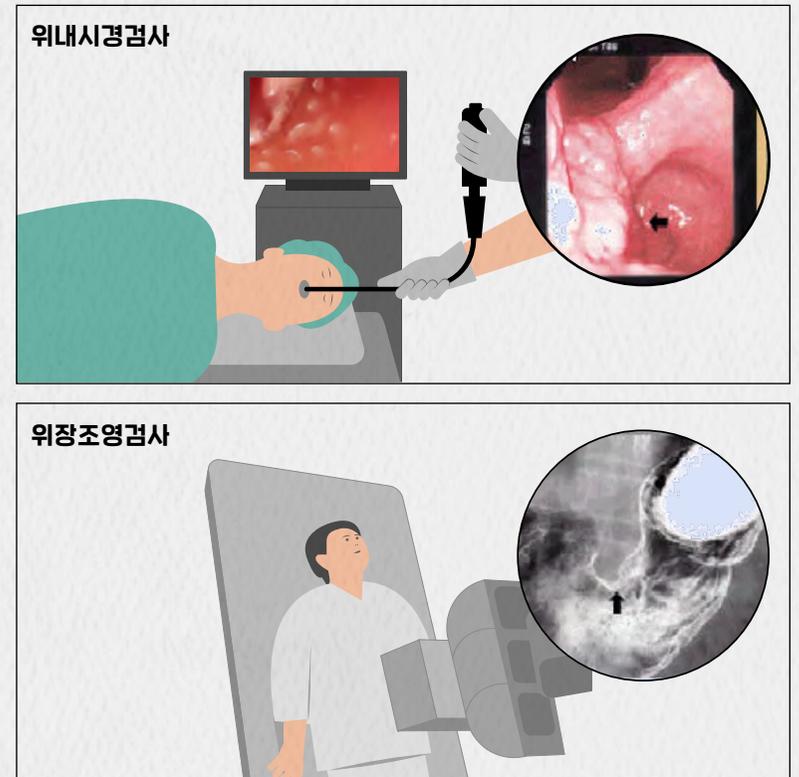
위내시경검사는 수면으로 받을 수 있으나, 수면비용은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암검진은 국가암검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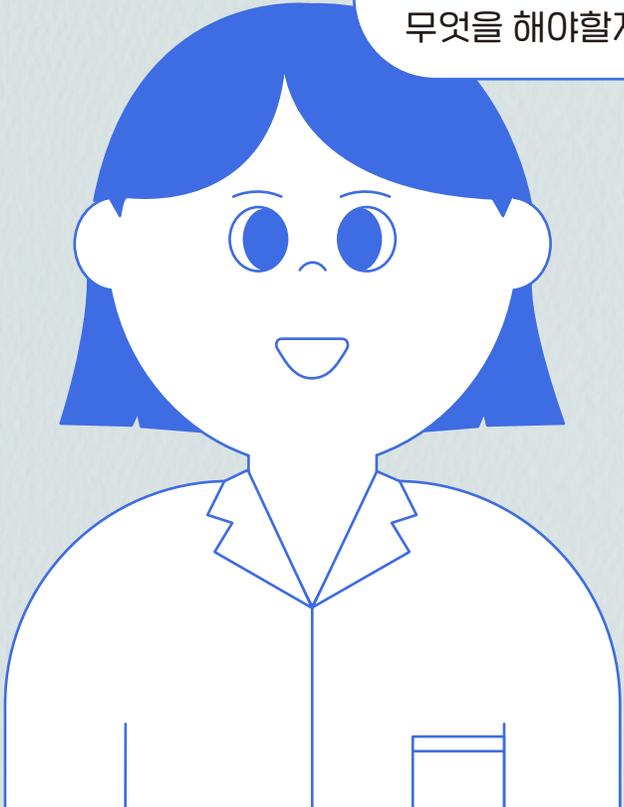
대상 40세 이상 성인

방법 위내시경검사
※ 위내시경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실시

검진 주기 2년마다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예방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식이요법을 하면 될까요?

제일 **효과가 큰** 위암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암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자극적인 식사로 인한 위 점막의 만성 염증,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위암의 발암 인자로 분류하였으며,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위암 발생 위험도는 3.8배가량 증가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4.5배 정도 위암의 위험성이 높고, 흡연 및 음주 등도 위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헬리코박터균은 고농도의 항생제 복용으로 균을 없애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련 치료가 필요한지는 의사와 진료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상피화생
위 점막이 장 점막과 비슷하게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상태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	예방법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가공육 적게 먹기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내시경검사 시 발견할 수 있으며 발견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여부 결정하기
흡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음주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비만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위암 가족력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신체 활동 부족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직업/환경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관계가 명확하며 근거가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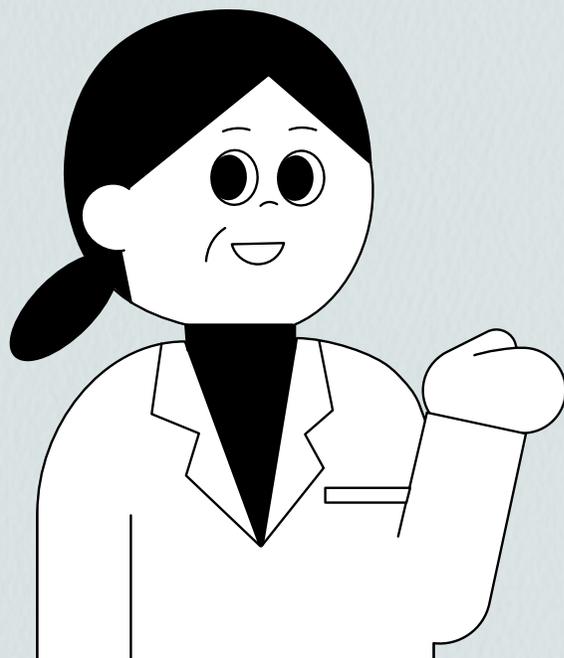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나 권고할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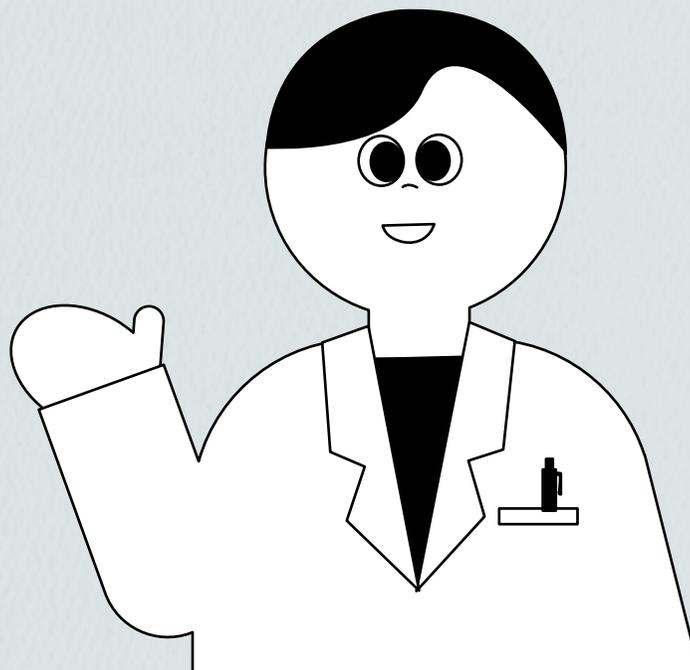
명확한 관계가 없거나 근거가 매우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걱정말아요,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생존율이 높고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40세 이상 성인은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의심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알기 쉬운 위암

조기 진단과 예방법

발행처 국립암센터

저자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편집/디자인/일러스트 소소한소통

발행일 2023. 3. 20.

본 정보지는 국립암센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것입니다.

본 정보지의 판매 또는 상업적 사용은 금합니다.

국민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행처인 국립암센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SN 2982-8694

